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 등 부

소 년 부

약 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만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6월 교육 내용	04
☺ 6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6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English Bible Study	28
☺ 6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7
어린이 QT God's Time	38
☺ 6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5
어린이 QT God's Time	46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6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7
☺ 6월 편편 플레이	
미로 찾기	58
글자 찾기	59
☺ 위드큐티스티커	60
위드포토	61
☺ 6월 추천도서	62
☺ 6월 교육활동지	63

암송 구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7절)

♥첫째주♥

“하나님의 계획,
통일”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7절)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해요.**

♥둘째주♥

“화평을 이룬
선지자 오렛”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하라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역대하 28장 11절)

***화평의 말씀을 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일꾼이 되어요.**

♥셋째주♥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자유인”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룯기 2장 8절)

***자유인들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요.**

♥넷째주♥

“복음통일
일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9-10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통일일꾼으로 세워져가요.**

실천 내용

1. 말씀을 기억하여 통일을 위해 기도해요.
2. 우리 주변에 있는 자유인들을 기억하고 도와요.



6월 첫째 주
2017년 6월 4일 ~ 6월 10일





하나님의 계획, 통일

첫 번째 주

♥ 주제 : 복음통일

♥ 암송구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17

♥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의 계획, 통일 ▷에스겔 37:15-23

♥ 오늘의 포인트 :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가져다가 무엇을 쓰라고 했나요? (16절)

② 여호와와는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17절)

★ 교육 활동 - “ 짹 맞추기 ”

준비물 - 워드 활동지, 가위

- ① 안경, 젓가락, 신발, 하트, 케이크, 반지 등의 그림을 반으로 잘라 그림 카드를 만들어요.
- ② 반으로 자른 그림들을 친구들에게 나눠 준 후 이들의 짹을 찾아 붙여보게 해요.
- ③ 그림의 짹을 맞추고 난 뒤, 그림들을 하나씩 들고 반쪽이었을 때와 하나였을 때의 느낌, 그리고 각각의 것들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해보아요.
- ④ 반으로 나누어진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며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요.
- ⑤ 통일은 나누어진 두 나라가 다시 한 나라로 되는 것임을 설명하며 통일이 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나누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이스라엘은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서로의 욕심 때문에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5년이 되던 해,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막대기를 가져와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도록 하거라.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합쳐 하나가 되게 하거라”(겔37:16-17)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두 나라가 반드시 하나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나누어진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통일’을 계획 하신 거예요.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 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원래는 한민족이었는데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계획하시고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통일도 계획하고 계세요. 통일되어 한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토론하기

Q1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Pray 통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통일이 될 때까지 기도해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27:1-9 “칭찬받는 왕 요담”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2. 그는 아버지 웃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 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3. 그는 주님의 성전의 '북쪽 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4. 유다의 산간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산림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5.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은 백 달란트와, 밀 만 석과 보리 만 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삼 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6.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7.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8.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9.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히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산간: 산과 산 사이에 산골짜기가 많은 곳

산림: 산과 숲, 또는 산에 있는 숲

요새: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



with
관찰

1. 요담이 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2-5절)
 ① 아버지 웃시아처럼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웠어요.
 ② 주님의 성전의 '복쪽 문'을 만들어 세웠어요.
 ③ 산림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어요.
 ④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2. 요담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6절)

“요담은 주 그의 앞에서 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with
생각

웃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어요. 그의 아버지 웃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았어요. 요담은 성전 복문을 세우고, 성벽을 더 길게 쌓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여러 시설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담을 좋게 여기셨어요.

with
결심

요담이 하나님께 칭찬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켰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지키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원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28:1-7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2.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3. '한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좇아 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4.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5.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6. 이스라엘의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십이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7.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아세야 왕자와 아스리감 궁내대신과 엘가나 총리대신을 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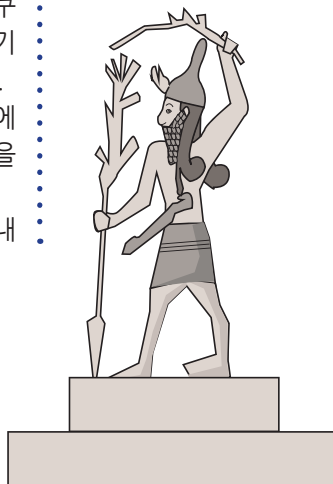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분향: 제사의식에서 향로에 불을 붙인 향을 넣고 향기로운 연기를 피우는 일

풍속: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with
관찰

1. 다윗과 아하스 왕이 한 일을 각각 바르게 연결해주세요. (7절)

다윗 왕 ·

아하스 왕 ·

- 바알 우상을 숭배했어요.
-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어요.
- 우상을 만들었어요.
-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2.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누구의 손에 넘기셨나요? (5절)

왕, 왕.

with
생각

요담의 뒤를 이어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나라의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그뿐 아니라 바알 신상들을 직접 만들었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 왕을 심판하셨어요. 시리아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아하스는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저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8:8-21 “유다백성을 풀어주는 이스라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8.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이십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 갔다.
9. 사마리아에 오렛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시오.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10.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소.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11.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 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자매이니, 곧 풀어 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오."
12.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므살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래의 아들 아미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13.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소.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였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소."
14.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15. 사람들이 위의 네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 발로 걸은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 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살기 :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

살육 : 사람을 마구 죽임

with
관찰

1. 예언자 오벳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말을 완성해주세요. (10-11절)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요.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이니,
곧 풀어 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2. 포로를 돌보아 주는 임무를 맡게 된 네 지도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15절)

with
생각

아하스가 심각한 잘못들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어요. 유다의 수많은 병사가 죽었고, 많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때 하나님의 예언자 오벳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야단쳤어요. 오벳은 군인들에게, 같은 민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노예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오벳 예언자와 같은 말을 하며 포로들을 유다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들은 포로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들의 친척들에게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군인들은 같은 민족인 유다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노예로 삼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들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 원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28:22-27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22.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23.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24.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 다가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 저곳에 제단을 쌓고,
25.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26.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27.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아하스가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23절)

“

_____”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2. 아하스가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26절)

{ }

with
생각

아하스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였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거리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섬겼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아하스 왕은 결국 부끄러운 역사만을 남기고 죽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아하스 왕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과 우상들만을 의지했어요. 우리도 아하스 왕처럼 옳지 않은 고집을 부린 적이 있나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제가 매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기도 :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 에스겔 37장 17절 -





6월 둘째 주
2017년 6월 11일 ~ 17일



memory time



화평을 이룬 선지자 오뎃

토
가재 주

♥ 주제 : 복음통일

♥ 암송구절 “그러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하라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역대하 28:11

♥ 성경 이야기 : 화평을 이룬 선지자 오뎃 ▷역대하 28:1-15

♥ 오늘의 포인트 : 화평의 말씀을 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일꾼이 되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여호와와 선지자 오뎃은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무엇이냐 말하나요? (11절)
- ②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14절)
- ③ 이스라엘의 네 지도자들은 포로가 된 형제들을 어떻게 해주었나요? (15절)

★ 교육 활동 - “복.음.통.일”

준비물 - 활동지, 필기도구 등

- ① 활동지에 안내에 따라 복음통일 4행시를 작성해요.
- ② 복음통일 네 글자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 ③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활동을 정리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베가왕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남유다에서 많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재물들도 빼앗아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즐거워하며 사마리아 성에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오돏이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형제라는 사실과 함께, 그런 형제를 포로로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말했어요. 빼앗은 재물들을 형제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말했어요. 그러자, 오돏 선지자의 말을 들은 병사들은 하나둘씩 자신이 빼앗아온 물건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포로로 끌고 온 남유다 형제들을 풀어주었어요. 또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상처가 난 사람들을 정성껏 간호해주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오돏을 통하여 남과 북이 서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오돏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포로로 잡혀 온 형제들은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가슴 아픈 전쟁을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서로 한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 오돏처럼, 우리도 화평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해야 해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준비해요.

토론하기

Q1 남과 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화평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Pray 오돏 선지자처럼, 우리도 화평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통일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29:1-11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아는 스가랴의 딸이다.
2.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3.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달렸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4.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뜰에 모으고,
5.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6.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7.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8.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오.
9.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10.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11.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성결: 거룩하고 깨끗함

분향: 예배 예식 가운데 하
나로, 향을 피우는 예식

with
관찰

1.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에 한 일은 무엇인가요? (3절)

- ① 잔치를 열고 축하파티를 했다.
- ②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다.
- ③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 ④ 성전의 문을 꼭꼭 잠겼다.

2.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했나요? (11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with
생각

히스기야는 다윗 왕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어요. 그는 먼저,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어요. 그동안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고 생각한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고치고, 제대로 예배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요청했어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심하기를 원해요.

with
결심

예배자로 바로서기로 결심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예배자로 바로서기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결심하고 하나님과 약속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29:12-19 “다시 깨끗하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2.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핫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새의 아들 마
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므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
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13.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라와 맛다니아가 나왔고,
14.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후엘과 시므이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웃시엘이 나왔다.
15.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16.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돌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17.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날
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레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십육일에 일을 다 마쳤다.
18.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19.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초하루: 매달 첫째날

여드렛날: 여덟째 날

with
관찰

1. 무엇을 기준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였나요? (15절)

“...주님의 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2. 성전을 청소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17절)

- ① 1일
- ② 8일
- ③ 16일
- ④ 24일

with
생각

히스기야의 결심 이후, 레위사람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들이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 예식을 하고,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했어요. 이전 아하스 왕이 버린 성전 기구들을 다시 찾았어요. 히스기야는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또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청소했어요.

with
결심

여러분은 흑식 결심한 것이 삼일 만에 끝나는 경우가 없었나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약속한 내용을 곧바로 실천했어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청소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새롭게 결심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29:20-28 “온 회중이 함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0.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21.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 받으려고, 그는 황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속죄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 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22.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숫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23. 마지막으로, **속죄제물**로 드릴 숫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24.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5.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즈와 거문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것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26.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27.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28.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가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속죄 : 죄를 용서받음

속죄제물 :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때 바치는 제물

with
관찰

1.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누구의 명령이었나요? (24-25절)
 - ① 다윗왕
 - ② 예언자 나단
 - ③ 선전자 갓
 - ④ 하나님
2. 다음 중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함께 드린 예배의 모습으로 틀린 것은? (26-28절)
 - ① 레위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았다.
 - ②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었다.
 - ③ 예배(번제)가 시작되자 찬양, 나팔소리,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퍼졌다.
 - ④ 예배(번제)가 마칠 때 까지, 제사장들은 노래를 불렀다.

with
생각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마쳤어요. 히스기야는 성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다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예배를 드렸어요.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손에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with
결심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혹시, 기쁜 마음이 사라지고 부모님의 강요로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결심해보아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릴래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29:29-36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9.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30.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31.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아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 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 오기도 하였다.
32. 회중이 가져 온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칠십 마리, 숫양이 백 마리, 어린 양이 이백 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33.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육백 마리, 양이 삼천 마리였다.
34.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35.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36.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화목제물 :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화목제 때 바치는 제물

with
관찰

1.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30절)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36절)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with
생각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 백성들에게 감사예배를 드리자고 말했어요. 많은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결국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도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되고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답니다.

with
결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혹시 나를 위한 예배는 아닌가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어요.

나의 기도 :

ENGLISH BIBLE STUDY



창세기 1:26- 31 / Matthew 27:27-50(NIRV)

Creativity—imagining what you could do because you're made in God's image.

창조성-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하는 것.

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27.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28.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29.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의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30. 또 땅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식물을 먹이로 준다." 그러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31.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26. Then God said, “Let us make human beings so that they are like us. Let them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s and the birds in the sky. Let them rule over the livestock and all the wild animals. And let them rule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27. So God created human beings in his own likeness. He created them to be like himself. He created them as male and female. 28 .God blessed them. He said to them, “Have children so that there will be many of you. Fill the earth and bring it under your control.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s and the birds in the sky. Rule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along the ground.” 29. Then God said, “I am giving you every plant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that produces its own seeds. I am giving you every tree that has fruit with seeds in it. All of them will be given to you for food. 30. I am giving every green plant as food for all the land animals and for all the birds in the sky. I am also giving the plants to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I am giving them to every living thing that breathes.”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31. God saw everything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It was day six.

Vocabulary

Creature-생물, 생명이 있는 존재

Likeness- 닮음

Plant-식물

Rule over- 다스리다, 통치하다

man being-사람, 인간

ENGLISH BIBLE STUDY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26. Then God said, "Let us make h_____ b_____s so that they are like us. Let them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s and the birds in the sky. Let them rule over the l_____ and all the wild animals. And let them rule over all the c_____s that move along the ground."

27. So God created human beings in his own l_____. He created them to be like himself. He created them as m_____ and f_____.

Interpretation

성경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Create)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늘이 생겼고 바다가 생겼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겼어요. 그리고 식물과 동물도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특별하고(Unique)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산이나 바다나 해, 달, 별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Creativity)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해요.

Application

Our God created everything, and because of that God is worthy of so much praise! And one of the ways we worship God is by singing songs to Him, but there are lots of other ways to worship God, too. We worship God when we pray and thank Him for everything that He has done. We worship God when we sit and listen for His guidance. We worship and bring glory to Him when we put others first and use our creativity to help people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창조성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배와 영광을 받으세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Psalm 139:14 시편 139장 14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How you made me is amazing and wonderful. I praise you for that.”

- Psalm 139:14, NIRV -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 에스겔 37장 17절 -





6월 셋째 주
2017년 6월 18일~24일



memory time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자유인

새 세 계 주

♥ 주제 : 복음통일

♥ 암송구절 “보아스가 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 룯기 2:8

♥ 성경 이야기 :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자유인 ▷ 룯기 2:8-17

♥ 오늘의 포인트 : 자유인들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룯은 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나요? (1장18절)
- 2 보아스는 나오미와 룯을 어떻게 도와주었나요? (4장10절)
- 3 룯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4장17절)

★ 교육활동 - “하나님의 선물, 자유인”

준비물 - 위드 활동지

- 1) ‘북한에서 이곳까지’ 영상을 보고 다음의 질문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 2) ① 영상속의 자유인 청년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었나요?
② 자유인들은 이곳에서 살 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나요?
- 3) 학교에서, 교회에서 자유인 친구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위드 활동지에 실려 있는 자유인들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사사시대 유다 베들레헴에 살몬의 아들 보아스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넓은 땅과 많은 하인들을 부리는 부유한 농부였어요. 농사를 지으며 평온하게 지내던 어느 날, 보아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몇 해 전 유다 땅에 기근이 들자,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자신의 친척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고 과부가 된 나오미와 모압여자인인 며느리 한 명만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인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거기다 나오미는 늙어서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나오미의 곁을 지키던 며느리 룯은 밭에 나가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날 보아스가 밭에 나가 보니 소문으로 들었던 나오미의 룯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낫선 땅에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룯을 도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룯에게 먹을 것과 곡식들을 더 챙겨주며,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워가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룯을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당시 문화에서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과부 둘만 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룯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하면 두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홀로된 나오미와 낫선 땅에서 고생하는 룯에게 가족이 되어준 보아스를 기뻐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낫선 땅에서 가족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룯과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북한에서 이 땅으로 이사와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이에요. 우리교회에서는 그들을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자유인'이라고 불러요. 자유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며,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요.

토론하기

Q1. 나오미와 룯을 정성껏 도왔던 보아스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Pray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기도해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30:1-12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갈**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2.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3.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5. 왕은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6.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 있는 백성들, 곧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중략)
11.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12.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전갈: 사람을 시켜 전하는 말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파발꾼: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함



with
관찰

1. 히스기야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 무엇을 명했나요? (1절)
 “(중략)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을
 , 오라고 초청하였다.”

2.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무엇을 선포했나요?
 (6절)
 “(중략)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 있는 백성들,
 곧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그것을 기념하여 율법에 기록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
 와께 돌아와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 했어요.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 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뜻대로 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날마다 예배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0:13-22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중략)

15. 둘째 달 열나흘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쳐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16.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 준 피를 받아 뿌렸다.
 17.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예식을 행하였다.
 18.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19.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대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20.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셨다.
 21.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 (중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부정 : 깨끗하지 못함

성결예식 : 거룩하고 깨끗함을 위한 의식



with
관찰

1.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기 전에 무엇을 했나요? (15절)

“(중략)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을 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 왔다.”

2.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긴 사람들을
위해 누가 기도 했나요? (18절)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음으로 시작하여 7일 동안 ‘무교절’로 지켰어요.
절기 행사를 지키기 전에 모든 것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곧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 세운 제단과 향단을 없애고, 정결 규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킬 수 없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비록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셨고 백성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with
결심

히스기야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서는 들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0:23-27 “다 함께 기뻐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3. 온 회중은 다시 이레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24.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25.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26.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27.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회중: 모임에 온 모든 사람

with
관찰

1. 온 회중은 다시 얼마 동안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했나요? (23절)

“온 회중은 다시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2. 절기를 즐겁게 지킬 때, 누가 그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했나요?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즐거워하였다.”

with
생각

온 회중이 다시 유월절을 7일 더 지키기로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백성들에게 일이 아니라, 즐거운 축제의 날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나그네까지 차별 없이 함께 축제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제를 통해,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지요.

with
결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차별 없이 함께 기뻐하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 기쁨의 축제, 곧 예배에 사랑 하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다 함께 기뻐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제인 예배를 통해 기뻐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31:1-10 “하나님께 드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중략)

3. 왕도 자기의 가족 때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4.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 오게 하였다.
5.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 왔고,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 왔다.
6.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 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십일조를 가져 왔다. 이렇게 가져 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7.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8.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9. 히스기야왕이제사장들과레위사람들에게예물더미에대하여문자,
10.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전념 :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쏟음

수확 :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임



with
관찰

1. 하나님께 드릴 것들의 더미를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언제 마쳤는가? (7절)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째 달이었다.”

2. 히스기야와 대신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것의 십일조 더미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8절)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하고,

을 하였다.”

with
생각

히스기야는 우상의 제단과 목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며 종교를 개혁을 했어요. 그 후,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꿀, 밭의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의 십일조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결국 많은 예물이 쌓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오히려 백성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믿었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내가 가진 재능,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 에스겔 37장 17절 -





6월 넷째주
2017년 6월 25일~7월 1일



memory time



복음통일 일꾼

네
사랑
해주

♥ 주제 : 복음통일

♥ 암송구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9-10

♥ 성경이야기 : 복음통일 일꾼 ▷출애굽기 3:1-12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통일 일꾼으로 세워져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여호와께서는 애굽에 있는 누구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셨나요? (7절)
- ②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셨나요? (10절)
- ③ 모세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12절)

★ 교육활동 - “말씀 암송 게임”

준비물 - 말씀 카드

- ①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이번 주의 암송구절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 ② 암송구절 단어 종이를 순서대로 맞추어 봅니다.
(정해놓은 시간 안에, 조를 나누어서 대결로 등등)
- ③ 다함께 암송구절 말씀을 외워봅시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명령을 듣고 두려워하며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11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12절)

하나님께서 오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또한, 보아스를 사용하여 롯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세요.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해요. 비록 우리는 작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인 통일을 위해 기도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유인들을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 통일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토론하기

Q1.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나요?

Pray 하나님, 복음통일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31:11-21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12. 모든 예물과 십일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13. 여히엘과 아사사야와 나합과 아사헬과 여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합과 브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열 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14.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15.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라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16. 세 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17.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스무 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18.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9.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20.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21.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예물: 고마움이나 예의를 갖
추기 위해 보내는 물건이나
돈

가문: 가족으로 이루어진 공
동체

족보: 한 집 안의 혈통을 기
록한 책

with
관찰

1. 히스기야는 어느 장소에 방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였나요? (11절)

“히스기야가 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2.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일을 처리하였나요? (20절)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고 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나누어주도록 명령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처리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선과 정직과 진실함으로 매 순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히스기야 처럼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히스기야 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2:1-8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2.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3.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 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4.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 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앗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5.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도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6.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모으고, 격려하였다.
7.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앗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앗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8. 앗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점령 : 어떤 장소를 차지하는 것

밀로 :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던 요새화된 성벽



with
관찰

1. 어떤 왕이 히스기야를 공격하였나요? (1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의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2.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였나요? (8절)

“(중략)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with
생각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때에 앗시리아 왕
산헤립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를 공격 했어요. 앗시리아는 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앗시리아의 군대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다시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며 전쟁준비를 하였어요.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난 다음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어요.

with
결심

히스기야는 앗시리아라는 강하고 무서운 나라의 군대가 공격해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쟁준비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앗시리아보다 더 강
한 분 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역대하 32:9-15 “의심하지 말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9. 얼마 뒤에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0.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11.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12.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13.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 낼 수 있었느냐?
14.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 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15.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 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포위 : 주위를 에워싸임.

with
관찰

1. 앓시리아 왕 산헤립은 누구를 보내어 히스기야와 유다백성에게 말하였나요? (9절)

“얼마 뒤에 앓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2. 앓시리아왕 산헤립은 유다백성들에게 누구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하였나요? (15절)

“그러니 너희는 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 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with
생각

앓시리아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두려움에 떨며 포기하고 항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 하였어요.
산헤립은 하나님께서 유다백성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어요.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믿어서는 안된다고 거짓말을 하며 유다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노력하였어요.

with
결심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어서는 안 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17.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역대하 32:16-23 “믿음으로 기도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6. 산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17. 산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 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18. 산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19.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20.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21.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앗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 버리셨다. 앗시리아 왕은 망신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22.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앗시리아의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23.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 왔다. 그 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망신: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함.



with
관찰

1. 앗시리아 왕 산헤립의 신하들은 누구와 누구를 비방하였나요? (16절)

“산헤립의 부하들은 계, 그리고 주님의 종

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2. 히스기야와 왕은 비방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0절)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하니,

with
생각

앗시리아 왕 산헤립은 유다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여 예루살렘 성을 점령 할 속셈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심하게 비방하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한 명을 보내어서 앗시리아 왕의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앗시리아 왕 산헤립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결국 친자식의 칼을 맞고 죽었어요.

with
결심

히스기야 왕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어요. 산헤립 왕의 군대는 히스기야 왕의 군대보다 강력하였고 산헤립 왕의 부하들은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계속해서 비방하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였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시편 1:1-3, 새번역>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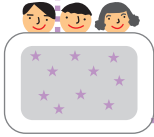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좋은 아침이야,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OO(이)처럼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한단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단다. 그 열매는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줘.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때 분명히 하는 모든 일이 잘 될거야. 친구와의 관계, 공부, 심지어 노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거야.

OO아(야)! 이 말씀 기억하면서, 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OO(이)가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말씀의 즐거움과 힘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아래의 찬양 가사를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Like a rain> - 타이니에코(Tiny echo)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습니다
봄바람처럼 반갑게 따뜻하게 찾아옵니다

사랑의 향기 내 맘을 채우네
봄비 내리듯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놀라운 그 은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 그 거룩한 보혈
나의 맘 고치시는 주님 그 사랑

사랑의 향기 내 맘을 채우네
봄비 내리듯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놀라운 그 은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 주셨네
날 새롭게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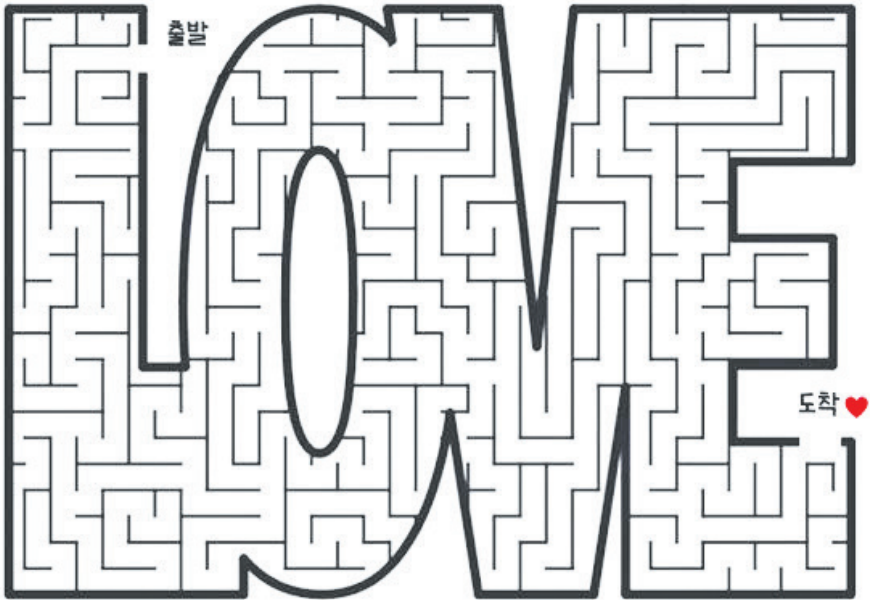
하나님 사랑 놀라운 그 은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날 감싸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OO(이)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잘 보냈습니다. 이 시간 잠자리에
들고자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달콤한 잠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PLAY

미로 찾기

‘LOVE(사랑)’ 글자 안의 미로를 통과해서 하트로 가는 길을 찾아주세요.



글 자 찾 기

6월의 주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아래에서 ‘성령하나님’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세요.

(단, 성.령.하.나.님. 다섯 글자가 완전히 붙어있는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딱 1개가 있습니다.)

님	성	령	하	나	성	하	나	님	성	령	님
하	나	님	령	성	하	령	성	하	령	하	나
성	령	나	님	령	나	님	하	령	나	님	성
령	하	성	하	나	님	령	하	나	하	성	령
하	나	님	령	성	령	님	나	님	성	나	하
나	성	령	하	님	하	성	령	하	님	령	나
성	령	하	나	성	나	하	님	나	성	나	하
님	성	령	하	나	님	성	령	님	령	님	성
나	령	님	령	님	성	님	나	성	하	나	님
하	성	나	하	나	하	령	성	하	령	성	령

QT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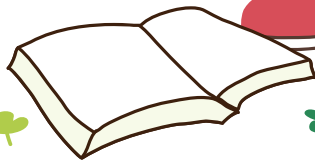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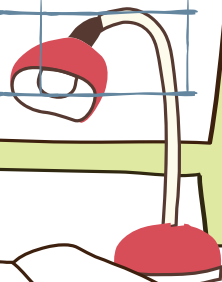
부 학년 반
이름 :

ST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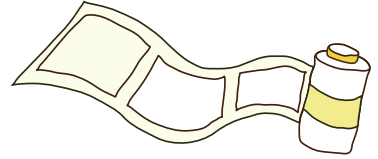


Bible study!

GOD'S TIME	1	2	3	4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우리 PHOTO



초등1부



3-1 이호림

초등2부



3-15 민주은

소년2부



5-3 김성연

소년2부



5-6 김민준



6월

제 목 :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 『자신감』

저자 : 주니어 규장 집필팀 / 그림 : 옥희진

출판 : 규장



< 우리의 자신감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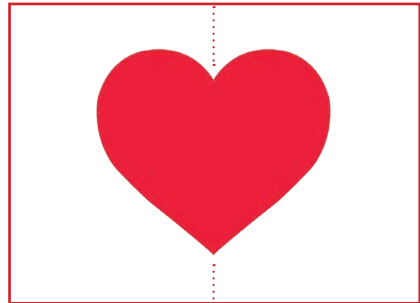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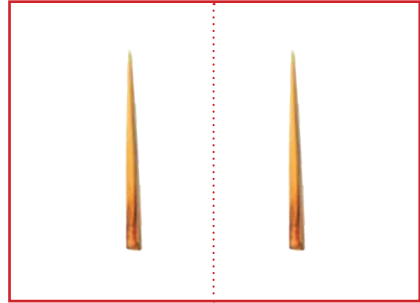
우리는 살다보면 수시로 달라지는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진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언제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은 우리에게 친숙한 학교생활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 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활동지

6월 첫째주(6/4)

- 짝 맞추기 -







- 하나님의 선물, 자유인 -

함께 기도해요.

1. 해외에 있는 자유인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과
여러 나라를 떠돌며 살고 있는 자유인들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그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남한의 자유인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낯선 남한 땅에 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자유인들에게 힘을 주세요. 교회, 학교,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3. 자유인들을 도와주는 교회와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 자유인들을 도와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유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보아스처럼
자유인들을 품고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emo



